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9월 4주 ~ 10월 1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중국, 7월 폴란드 최대 상품 수입국으로 사상 최초 독일 추월(9.14)
 - 폴 중앙은행(NBP)에 따르면 2026년 7월 폴란드의 상품 수입액은 1,435억 즈워티로 전년 동월 대비 14.3% 증가,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독일을 제치고 폴란드의 최대 상품 공급국으로 부상
 - 중국의 최대 공급국 부상은 폴란드의 전자·IT 장비, 자동차 및 소비재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, 향후 폴란드의 대중 무역구조 및 독일 중심의 기존 공급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
- 폴란드, 우크라이나인의 해외 부동산 최대 매입시장으로 부상(9.14)
 - 2020~2025년 우크라이나인이 9개국에서 매입한 부동산은 약 90,800건, 총 185억 달러 규모이며, 폴란드가 59.5억 달러·약 38,500건으로 금액과 거래 건수 모두 1위를 차지
 -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인 약 184,000명이 폴란드 은행에 총 136억 즈워티의 대출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, 이 중 78%가 주택담보대출로 평균 대출액은 45.9만 즈워티임
- 산업생산자물가(PPI), 전년 대비 4.2% 상승하며 시장 예상 상회(9.18)
 - 통계청(GUS)은 2026년 8월 산업생산자물가(PPI)가 전년 동월 대비 4.2%, 전월 대비 0.6% 상승했다고 발표
 - 부문별로는 광업·채석업이 전년 동월 대비 6.4% 상승해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, 제조업도 4.6% 상승해 전반적인 생산비용 상승세를 견인
 - 전력·가스·용수 생산·공급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.4%, 수도 공급·하수·폐기물 처리 부문은 2.2% 상승, 한편 건설·조립 생산가격은 6.2% 상승

- 시장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제조·건설 부문의 비용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
- 폴란드, 2026년 주택 공급 및 건설경기 증가세 지속(9.21)
 - 2026년 1~8월 폴란드에서 약 132,200호의 주택이 준공되어 전년 동기 대비 4.5% 증가했으며, 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흐름
 - 같은 기간 주택 착공 물량은 약 153,5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4.8% 증가, 향후에도 신규 주택 공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나타남
 - 2025년 연간 주택 준공 물량은 약 208,800호로 전년 대비 4.3% 증가, 2025년 말 기준 폴란드의 전체 주택 재고는 약 1,620만호로 전년 대비 1.2% 확대
 - 폴 주택시장은 주택 착공 및 준공 증가와 건설부문 생산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공급 측면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모습, 향후 주택 재고 증가와 건설활동 확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- 우크라이나 8월 실질 GDP 1.2% 증가(9.22)
 - 우크라이나 경제연구소(IER)는 8월 실질 GDP가 전년동월 대비 1.2% 증가한 것으로 추정, 농업 부문의 호조가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며, 공식 통계상 2분기 실질 GDP는 전년동기 대비 0.4% 증가함
- 우크라이나 8월 상품무역수지 약 56억 달러 적자(9.22)
 - 우크라이나의 8월 상품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8% 감소한 26억 달러, 수입은 23% 증가한 82억 달러를 기록, 1~8월 누계로는 수출 266억 달러, 수입 663억 달러로 약 39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
 - 1~8월 기준 주요 교역 상대국은 중국(수입 196억 달러), 폴란드(수입 63억 달러·수출 32억 달러), 독일(수입 44억 달러·수출 17억 달러) 순이며, 주요 수출국은 폴란드·튀르키예·독일 등으로 나타남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- Siemens Mobility, 폴란드 Gądkie에 기관차 정비·서비스센터 신설(9.14)
 - Siemens Mobility는 포즈난 인근 Gądkie에 약 4,300m² 규모의 기관차 정비·서비스센터를 건설하며, 2027년 완공 및 가동을 목표로 추진, 이번 투자는 Siemens Mobility의 폴란드 내 첫 그린필드(greenfield) 투자로, 중·동부 유럽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
- Orlen, 2035년까지 약 3,800억 PLN 투자 추진 및 국내 협력사 확보(9.14)
 - Orlen은 2035년까지 약 3,800억 즈워티(약 130조원)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하며, 정유·석유화학·에너지 외에 수소, 바이오연료, 합성연료, CO₂ 포집·저장 등 에너지 전환 분야까지 투자 범위를 확대할 계획
 - 특히 Orlen은 투자 프로젝트에서 폴란드 기업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'Local Content' 강화를 추진하며, 잠재 협력사의 기술·사업 역량과 대형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저해하는 규제·인력·자금 등 시장의 주요 장애 요인도 파악할 계획
- Orlen·PERN, 에너지 안보 핵심 인프라 보호 위한 협력협약 체결(9.14)
 - Orlen과 PERN은 폴란드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과 핵심 인프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하고, 인프라에 대한 위협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
- Bydgoszcz 광역권, 물류·창고 산업 기반 확대 및 투자유치 강화(9.14)
 - S5·S10 고속도로를 통해 폴란드 주요 도시 및 베를린 등 서유럽 시장과 연결되며, 국제공항·철도·내륙수로를 통한 그단스크·그디니아 항만 접근성도 확보해 물류기업의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는 입지적 강점을 보유
 - 약 130ha의 투자 가능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, 비드고슈치 산업·기술 공원(BPPT)은 약 300ha 규모에 187개 기업, 5,400명이 입주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
- PSE, 10월 우크라이나 전력 수입을 위한 송전용량 입찰 실시(9.14)
 - 폴 전력망공사(PSE)는 폴란드-우크라이나 연계선 송전용량에 대한 월간 입찰을 개시했으며, 2026년 10월 1~31일 우크라이나→폴란드

방향의 전력 송전용량을 배정할 예정임

○ 폴란드 고속철도, 바르샤바 - 우치 - 브로츠와프 구간 견인변전소 건설에 18개사 입찰 참여(9.14)

- CPK가 추진하는 Port Polska 고속철도 사업의 견인변전소 건설 입찰에 총 18개사가 8개 신청 형태(7개 컨소시엄)로 참여했으며, CPK는 심사 후 최대 7개 사업자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
- 입찰 참여사(총 18개사, 7개 컨소시엄)
 - ① BUDIMEX - Ferrovia Energia
 - ② ELFEKO - GRINEA
 - ③ VICTOR ENERGY - ELEKTROBUDOWA
 - ④ POMORSKIE PRZEDSIĘBIORSTWO MECHANICZNO-TOROWE
- ELBUDBIS - AGAT - EL-MARK
 - ⑤ ELEKTROTIM - ALTERGA - Siemens Mobility
 - ⑥ ENPROM - SPIE Energy Poland
 - ⑦ ELEKTROPAKS
 - ⑧ ELBUD Warszawa - BD Kasprzak 등
- 선정 사업자는 설계·인허가부터 시공·인증·가동까지 일괄 수행하며, 바르샤바 - 신공항 - 우치 및 시에라츠 - 브로츠와프 구간에 총 5개 견인변전소를 구축하고, Pabianice·Dziadowa Kłoda 등 추가 변전소 건설도 포함

○ PSE, 수자원 부족이 폴 에너지 부문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(9.14)

○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항, 신규 화물터미널 건설(9.15)

- 브로츠와프 공항 화물운행사 LDT는 약 3,800m² 규모의 신규 화물터미널 건설에 착수했으며, 총사업비는 31백만 즈워티, 2027년 1분기 완공 예정
- 신규 시설 완공 시 화물창고 면적은 기존 5,500m²에서 7,500m², 사무 공간은 1,750m²에서 2,500m²로 확대되며, 연간 화물 처리능력은 현재 약 1.18만 톤에서 3.5만 톤으로 약 3배 증가할 전망
- 사업비 중 25백만 즈워티는 폴 산업개발청(ARP)의 장기 투자대출로 조달, 건축·기술 인프라뿐 아니라 화물처리 장비 및 안전설비 구축에도 활용

○ PKP, 브로츠와프-엘크 구간 Rail Baltica 건설 계약 체결, 역대 최대 철도사업 본격화(9.15)

- 폴란드 국영철도 인프라 운영사 PKP PLK는 비아워스트크(Białystok)-엘크(Elk) 간 Rail Baltica E75 노선 건설사업을 Track Tec Construction 주도 컨소시엄과 체결했으며, 계약금액은 52억 즈워티로 PKP PLK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도공사 계약
- 사업은 2025년 1월 입찰 공고 이후 20개월 이상 사업자 선정 과정이 이어졌으며, 최종적으로 Track Tec Construction, Intop, Unibep, Intop Infrastruktura, Pomorskie Przedsiębiorstwo Mechaniczno-Torowe 등 5개사 컨소시엄이 시공을 담당하고, 계약일로부터 46개월 내 완공 예정
- 총 100km 구간을 전면 복선화하고 ▲8개 역 ▲810개 정차역 △도로 교량 20개 ▲8철도교량 12개 ▲8지하통로 12개 등을 건설·개량하며, Podlasie 및 Lipińskie Małe에 열차 교행을 위한 기술역을 신설해 노선 수송능력을 확대할 계획
- 이번 사업은 당초 Torpol·Mirbud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Mirbud의 환경법 위반 관련 행정벌금 미신고 문제로 국가 이익심판위원회가 해당 제안의 배제를 결정하는 등 입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업자 선정이 번복된 끝에 최종 계약 체결

○ Orlen, 베네수엘라산 원유 거래로 약 16억 즈워티 손실, 암호화폐 활용 거래 및 중개구조 논란 확대(9.15)

- Orlen의 스위스 자회사 Orlen Trading Switzerland(OTS)가 2023년 11월 두바이 소재 Hannon International과 약 600만 배럴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약 3.45억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, 원유가 폴란드에 도착하지 않아 약 16억 즈워티의 국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됨
- 거래 과정에 암호화폐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, 일부 자금은 두바이 소재 암호화폐 거래업체에서 동결되었으며, Hannon 측 중개인들이 원유 공급을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거래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파악됨
- Orlen은 2024년 3월 해당 계약을 종료, 선지급금 2.3억 달러 회수를 추진 중이나, Hannon 측은 해당 금액을 상환할 재원이 충분하지

않다는 입장, 폴 검찰은 전·현직 ORLEN 및 OTS 관계자들을 기소

- 폴란드 Grupa Azoty Siarkopol 노조, 임금·단체협약 이행 요구하며 파업 예고(9.15)
- Grupa Azoty Siarkopol, 노조와 임금협상 타결, 임금 인상 합의로 파업 위기 해소(9.18)
- PGE, 루블린 대규모 열저장시설 설계·건설 입찰(9.16)
 - PGE Energia Ciepła는 Lublin-Wrotków 열병합발전소에 대규모 열에너지 저장시설을 설계·건설 사업 입찰을 시작, 해당 발전소는 루블린 지역 난방 수요의 50% 이상을 담당하며, 잉여 열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증가할 때 활용해 열공급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
- Qemetica, 향후 4년간 20억 즈워티 이상 탈탄소화 투자 추진(9.17)
 - Qemetica는 EU 기후정책에 대응하고 사업장 내 CO₂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향후 4년간 20억 즈워티 이상을 탈탄소화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며, 주요 투자 대상으로 바이오매스 및 생활폐기물 활용 설비를 추진
- Orlen, 전력 생산 대신 열 공급 목적의 SMR 기술 투자 추진(9.17)
 - Orlen Group은 핀란드 원자로 기술기업 Steady Energy가 개발 중인 열 공급 전용 소형모듈원자로(SMR)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, 이를 통해 원자력 기술 및 관련 사업 역량을 강화할 방침
 - Orlen VC는 Steady Energy와 투자회사 3North Partners의 합병 및 핀란드 나스닥 퍼스트 노스 시장 상장 추진 과정에서 약 70백만 유로 규모의 투자자금 조성에 참여하며, 향후 추가 투자도 검토
- PGE, Kraków·Lublin 등 5개 지역에서 신규 가스 피크 발전 프로젝트 검토(9.17)
 - PGE는 전력 수요 급증 시 대응하는 가스 연료 기반 피크발전 설비 추가 사업을 준비 중이며, 현재 Kraków, Lublin, Turów, Opole, Ostrów Wielkopolski 등 5개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

- 신규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는 2030년 이후 용량시장 지원제도 운영 방안 및 향후 경매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, 제도적 지원 여부가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작용
- **K2 전차 엔진 정비 거점, 포즈난 군용차량공장(WZM)으로 지정(9.18)**
 -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산 K2 전차 및 지원차량의 엔진 정비·유지보수 거점으로 서부 포즈난 소재 군용차량공장(WZM)을 지정했다고 발표했으며, 현재까지 폴란드에 K2 전차 200여 대가 인도된 상황
 - 소비아코프-차르네츠키(Magdalena Sobkowiak-Czarnecka) 국방차관은 K2 장비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폴란드의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강조
 - 폴란드는 2022년 한국과 K2 180대 도입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5년 8월 추가 180대 계약을 체결했으며, 이 가운데 116대는 K2GF, 64대는 폴란드 맞춤형 K2PL로 도입 예정. K2PL 대부분은 글리비체 소재 Bumar-Łabędy 공장에서 생산될 계획
- **FPE, PSE와 4.45억 즈워티 규모 고압전력망용 케이블 공급 기본협약 체결(9.18)**
 - 에너지케이블 제조업체 Fabryka Przewodów Energetycznych(FPE)가 국영 송전망 운영사 PSE와 고압 송전선 건설·현대화를 위한 케이블 공급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, 계약 규모는 총 445백만 즈워티 상당
 - 대상 사업에는 포메라니아·바르미아 지역 400kV 송전선 건설·현대화 사업과 향후 원전 건설 관련 전력 인프라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, 폴란드의 전력망 확충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연계될 전망
 - FPE는 산업개발청(ARP)이 지배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, FPE 측은 이번 협약을 폴란드 기업 간 거래를 통한 '로컬 콘텐츠(local content)' 확대 사례로 평가
- **Enea 코지에니체 가스복합발전 2기 건설 본격화, 2029년 가동 목표(9.18)**
 - Enea그룹은 Kozienice 발전소 내 총 1,336MW 규모의 가스복합발전(CCGT) 2기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시공 단계에 진입

- 기초공사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, 2개 발전기의 상업운전 목표 시점은 각각 2029년 3월 31일과 6월 30일로 설정
- 총 사업비는 80.5억 즈워티로, 이 중 EPC 계약 규모는 63.8억 즈워티이며, 터키 Çalık Enerji가 발전소 건설 총괄사업자로 참여
- **Orlen, 우크라이나 Naftogaz와 LNG·석유제품 공급 협력 확대(9.21)**
 - Orlen은 우크라 국영 에너지기업 Naftogaz Group과 LNG 및 석유 제품 공급, 공급경로 다변화 등을 위한 2건의 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, 2027년 1분기 중 LNG 3회 도입분의 우크라이나 공급 가능성을 공동 검토할 예정
 - 별도 협력 양해각서(MOU)를 통해 Naftogaz 계열사 Ukrnafta에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석유제품을 우크라이나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하며, 우크라이나산 원유를 중부유럽 정유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안과 사용 후 도로용 탱커의 Ukrnafta 이전 가능성도 검토
- **Track Tec, 폴 철도 인프라 기업 Tines Rail 인수하며 해외시장 확대 기반 강화(9.21)**
 - 폴 철도 인프라 기업 Tines Rail이 5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Track Tec Group에 인수되었으며, 이번 결합을 통해 Track Tec의 산업 규모·글로벌 판매망과 Tines Rail의 독자 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
- **폴란드, Foxconn과 전기차·반도체 생산 프로젝트 협상 수주 내 마무리 전망(9.21)**
 - 폴 국유자산부는 대만 Foxconn과 추진 중인 전기차 및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 협상을 수주 내 마무리하고, 가을 중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
 - 전기차 사업은 Jaworzno에 산업 거점을 구축, 2029년 첫 차량 생산을 목표로 하며 최종적으로 연간 45만 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
 - 해당 사업은 폴 국영 ElectroMobility Poland와 Foxconn 간 전략적 협력으로 추진되며, 기술·노하우 이전과 현지 부품·공급망 육성을 통해 폴란드 내 전기차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

- 아울러 남서부 돌니실롱스크 지역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도 추진 중이며, 전기차 허브 사업에는 EU 코로나19 재건기금 대출을 통해 약 45억 즈워티 규모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
- 폴, 광산 부지 내 태양광·에너지저장장치 결합형 발전설비 구축(9.22)
 - EDP Energia Polska와 PBI Group이 협력을 확대해 Świętokrzyskie Janczyce 돌로마이트 광산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(BESS)를 구축하며, 2027년 말까지 상업운전을 목표로 함
 - 함께 구축되는 BESS는 출력 1.25MW·저장용량 5MWh 규모로, 최대 출력 기준 약 4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태양광 발전량이 부족한 시간대에도 생산 전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
- PGE GiEK, Turów 발전소 7호기 계약분쟁 종결 및 135백만 즈워티 정산금 확보(9.22)
 - PGE GiEK는 Turów 발전소 7호기 설계·건설 계약과 관련해 MPE Deutschland(구 Mitsubishi Power Europe), Budimex, Técnicas Reunidas 컨소시엄과 6월 17일 합의하고, 컨소시엄으로부터 135백만 즈워티를 지급받음
 - 이번 합의는 7호기 일괄도급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양측의 모든 청구를 대상으로 하며, 컨소시엄은 미지급 공사대금 164.2백만 즈워티 및 이행보증금으로 회수한 134.5백만 즈워티의 반환 청구를 철회
- PKP Intercity, 2028년까지 철도 견인전력 전량 재생에너지 인증 전력으로 전환(9.22)
- Energa Operator, 동부 폴란드 전력망 투자 확대, 재생에너지 접속 능력 48MW 이상 확충(9.22)
- Grupa Azoty 국유화 지분 확대 통한 최대 3,370만주 신주 발행 추진, 현대화 자금 조달(9.22)
 - Grupa Azoty 임시주주총회는 최대 3,370만주의 신규 E시리즈 주식을 발행해 국고(State Treasury)에 사모 방식으로 배정하는 안을 의결했으며, 조달 자금은 그룹의 현대화 및 사업개발에 활용할 예정

- Grupa Azoty는 이번 자본확충이 그룹 회복 과정의 핵심 요소라며, Grupa Azoty Polyolefins의 Orlen 매각 및 금융기관과의 장기 구조 조정 합의 추진과 함께 재무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
- Grupa Azoty는 2026년 상반기 순손실을 전년 동기 약 8.78억 즈워티에서 약 5.94억 즈워티로 축소했으나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, 이번 증자를 포함한 구조조정 조치의 성과가 향후 재무개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
- Port Polska, 체코 철도관리기관과 고속철도 협력 협약 체결, 폴란드 카토비체 - 체코 오스트라바 연결 추진(9.23)
 - 폴란드 Port Polska와 체코 철도 인프라 관리기관 Správa železnic은 베를린 InnoTrans 2026에서 양국 간 철도 연결망 개발 및 EU 재원 공동 확보를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
 - 협력의 핵심 사업은 카토비체 - 오스트라바(Katowice - Ostrava) 구간의 고속철도 연결로, 양국은 해당 사업에 대해 EU의 CEF(Connecting Europe Facility) 등 유럽연합 재정지원 확보를 공동 추진할 계획
 - 향후 브로츠와프 - 프라하 철도 연결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
- Orlen Termika Silesia, Jastrzębie-Zdrój·Pniówek 열공급망 연계에 102.7백만 즈워티 투자(9.24)
 - Orlen Termika Silesia는 Jastrzębie-Zdrój와 Pniówek 발전소의 열공급 시스템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며, 총사업비는 102.7백만 즈워티
 - 2026~2029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총 6.789km 규모의 열공급망 및 관련 설비를 구축하며, 완료 시 연간 화석연료 사용량을 약 121,141GJ, CO₂ 배출량을 약 13,928톤 감축하고, Pniówek 발전소의 보일러 생산열 일부를 열병합발전으로 생산된 열로 대체해 열공급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
- 리투아니아 Ignitis, 폴란드 전력·가스 판매 확대 및 풍력발전 사업 지속 강화(9.24)
 - 리투아니아 에너지그룹 Ignitis는 폴란드 전력·가스 시장에서 사업을

확대, 2026년 상반기 폴란드 전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4.5% 증가한 0.97TWh, 가스 판매량은 44.3% 증가한 0.22TWh를 기록

-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자회사 Ignitis Renewables Polska가 Pomerania(94MW), Silesia I(50MW), Silesia II(137MW) 등 총 281MW 규모의 풍력발전소 3곳과 24MW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보유하고, 폴란드 10대 풍력발전 사업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
- 2025년 8월 Silesia II 풍력발전소(137MW, 38기)의 상업운전(COD)을 확보했으며, 향후 폴란드에서 풍력발전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(ESS) 프로젝트 개발도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른 전력 계통 유연성 확보 및 에너지 전환 사업을 강화할 계획

○ 영국 Gülermak Renewables, 69MW 규모 Powidz 2 태양광 프로젝트 인수(9.24)

- 영국 런던 소재 Gülermak Renewables가 폴란드 Wielkopolskie 지역의 69MW 'Powidz 2' 태양광 프로젝트를 미공개 금액에 인수, 해당 사업은 계통연계가 가능한 건설 준비 완료 프로젝트로, 기존 5MW Powidz 1 사업 인근에 위치
- Powidz 2 EPC 입찰을 조만간 개시할 예정이며, 2027년 4분기 착공, 2029년 최초 전력 생산을 목표로 추진

○ BGK, 중동부유럽 인프라 투자를 위한 'Three Seas' 펀드 공동 설립, 초기 자본 3.6억 유로(9.24)

- 폴 국책개발은행 BGK가 중동부유럽 5개 개발기관 및 유럽투자기금(EIF)과 함께 Three Seas Initiative Infrastructure Fund of Funds(3SII FoF) 설립
- 초기 자본은 3.6억 유로로, 6개 개발기관 출자금 1.8억 유로에 EIF가 동일 규모를 추가 투자했으며, BGK는 50백만 유로 출자
- 에너지·교통·디지털·사회 인프라 분야의 지역 펀드에 투자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중동부유럽 전략 인프라 사업을 지원할 계획
- 향후 10여 개 지역 인프라 펀드를 통해 최대 20억 유로 규모의 투자 자금 동원을 목표로 하며, 폴란드도 주요 투자 대상에 포함

- 폴란드·크로아티아·루마니아·리투아니아·슬로베니아·불가리아가 창립 참여국이며, 향후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의 추가 참여도 가능하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 예정
- GDDKiA·슈체친시 Mierzyn 우회도로 건설 착수(9.24)
 - 폴 국가도로청 GDDKiA와 슈체친시가 DK10호선 Mierzyn 우회도로 4.6km 구간 건설을 위한 시공계약을 Budimex와 체결
 - 총사업비는 153.4백만 즈워티로 GDDKiA가 70.9백만 즈워티, 슈체친시가 82.4백만 PLN을 각각 부담

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- IFC, 우크라이나 항만·도로·철도 인프라 PPP 사업 확대 추진(9.14)
 - 국제금융공사(IFC)는 우크라이나 인프라 현대화·재건을 위해 항만, 도로, 국경 간 교통망 및 철도 분야의 민관협력사업(PPP)을 체계적으로 확대 하고, 개별 사업 중심에서 민간투자 유치에 위한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
- 우크라 에너지 부문, 장기적으로 최소 910억 달러 투자 필요, 캐나다 자본 유치 추진(9.14)
 - 우크라이나 정부는 에너지 시스템의 재건·현대화를 위해 향후 수십 년간 최소 91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, 캐나다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적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계획
 - 우크라이나와 캐나다는 지난 2월 전략적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으며, 국제원조보다 투자 중심의 협력을 강조. 우크라이나 정부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캐나다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할 방침
- EU,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축소 과정에서 가스 재고 부족 및 공급망 리스크 확대(9.11)
 - EU의 가스 저장시설 충전율이 67%로 전년 동기 80% 대비 13%p 낮은 수준을 기록,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제약되면서

겨울철 가스 공급 및 가격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

- EU는 2022년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춰왔으며, 러시아산 가스의 EU 수입 비중은 약 45%에서 12% 수준으로 감소하고 원유 수입도 제재를 통해 크게 축소된 상황
- 그러나 낮은 가스 재고와 지정학적 불안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겨울철 수요 급증 시 공급 차질 및 가스 가격 급등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, 특히 EU가 2027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 수입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대체 공급원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

○ 러 드론, 폴란드 국경 인근 키이우-바르샤바 열차 기관차 타격(9.13)

-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국경에서 약 2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볼린(Volhynia) 지역에서 키이우-바르샤바 여객열차의 기관차를 타격했으나, 승객 중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

○ 우크라 Korolivskyi Smak, 유지종자 가공시설 현대화 및 8.5MW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건설 추진(9.15)

- 우크라 키로보흐라드 지역의 Korolivskyi Smak(Viktor i K)은 해바라기·유채·대두 가공시설 현대화와 자체 에너지 공급을 위한 8.5MW급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(CHP) 건설을 추진
- CHP에는 증기보일러 2기와 Siemens SST 200 터빈 발전기를 설치하고, 해바라기·대두·메밀 껍질 및 이들 부산물로 만든 펠릿 등 농업가공 부산물을 주요 연료로 활용할 예정이며, 4개 사일로 규모의 전용 연료 저장시설도 구축할 계획

○ 우크라이나 정부, 전쟁피해 기업 지원 위해 30~40억 달러 규모 'First-Loss Fund' 조성 추진(9.14)

-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기업의 고정자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30~40억 달러 규모의 First-Loss Fund 조성을 추진하며, 2027년 1월부터 기업 1개 법인당 최대 1,000만 달러까지 전쟁 관련 피해를 보상할 계획
- 우크라이나 수출신용기관(ECA)이 기금을 운영하고, 정부·국제기구가

초기 손실(first layer)을 보전한 이후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은 민간 보험사 및 국제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

- 자기부담금(deductible)은 적용하지 않으며, 전쟁으로 발생한 직접·간접 피해 모두를 보상하고,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지급하되 필요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
- 우크라이나, 캐나다 보증 기반 세계은행으로부터 8.41억 달러 재정 지원 확보, EU 대규모 대출프로그램 참여도 협의(9.15)
 - 우크라이나 정부는 캐나다 정부의 보증으로 World Bank으로부터 8.41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을 예정이며, 해당 자금은 전쟁 기간 국가예산에서 선지출한 연금 지급 비용을 보전하는 데 활용
 - 이번 지원은 세계은행의 PEACE in Ukraine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되며,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재정적자를 보완하고 연금·사회보장 급여, 교사·의료인력 급여 및 핵심 인프라 유지 등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
- 폴 기증 지하철 차량 운송 입찰서 약 35백만 유로 횡령 의혹(9.16)
 - 우 반부패 당국(NABU·SAPO)은 폴란드가 키이우에 기증한 지하철 차량 운송사업과 관련해 약 350만 유로 규모의 횡령 의혹으로 7명을 기소
 - 키이우 메트로는 2023년 차량 운송을 위해 190백만 흐리우냐(약 488만 유로) 규모의 입찰을 실시했으며, 낙찰업체는 실제 운송을 130만 유로에 외국 업체에 재하도급한 뒤 약 350만 유로의 차액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파악됨
- Naftogaz, 캐나다 Kino Aski LNG와 수입 협력 MOU 체결, 유럽 향 캐나다산 LNG 도입 검토(9.15)
- EBRD, 우크라이나 ProCredit Bank에 최대 3.3억 유로 금융지원 승인, 중소기업·핵심산업 투자 지원(9.15)
 -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은 우크라이나 ProCredit Bank에 대해 총 최대 3.3억 유로 규모의 2개 금융지원 프로젝트를 승인
 - 첫 번째는 최대 3,000만 유로 규모의 무담보 흐리우냐화 대출로, 우크라이나

중소기업(SME) 대출에 활용될 예정이며, 이 중 최대 750만 유로는 EU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·설비 현대화에 배정, 최소 70%는 지속가능·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도록 설정됨

- 두 번째는 ProCredit Bank가 신규 취급하는 최대 3억 유로 규모 대출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방식으로, EBRD가 90백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, 전체 포트폴리오 중 2.4억 유로는 농업·식품가공·유통·물류 등 핵심산업의 운전자금 및 투자를 지원

○ 우크라, VAT 1%p 인상 통한 기업 전쟁위험 보험기금 조성 검토(9.15)

- 우크라이나 경제·환경부는 기업의 전쟁위험(포격 등) 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보험기금 조성을 검토 중이며, 재원 마련을 위해 VAT 세율을 1%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
- 보험기금이 조성될 경우 국가가 일부 위험을 부담해 민간 보험사의 기업 대상 보험상품 확대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, 전쟁위험 관련 통계 및 보험 포트폴리오를 축적해 향후 국제 재보험시장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함

○ 우크라 호멜니츠키주, 최대 117MW 규모 신규 풍력발전단지 추진, 15기 터빈 설치(9.16)

- 우크라이나 호멜니츠키주 솔로브키브치·야르몰린치 지역에 VES Solobkivtsi가 최대 117MW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며, 최대 15기의 풍력터빈을 설치할 계획

○ 美 DFC, DTEK에 85백만 유로 대출 승인, 우크라이나 배터리 저장 설비 확대 지원(9.17)

-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(DFC)는 우 최대 민간 에너지기업 DTEK에 85백만 유로 규모 대출을 승인하고,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(BESS) 및 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를 지원
- DTEK은 지난해 미국 에너지저장 기술기업 Fluence와 협력해 Kyiv 및 Dnipropetrovsk 지역에 6개 배터리 저장시스템을 구축했으며, 총 저장 용량은 400MWh로 약 60만 가구에 2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

- 美 DFC, Vodafone Ukraine 통신망 재건·5G 확대 위한 금융지원 승인(9.17)
 - DFC는 우크라이나 2위 이동통신사 Vodafone Ukraine에 대한 부채 금융 지원을 승인했으며,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음
 - 러시아의 지속적인 통신 인프라 공격에 대응해 핵심 통신망 현대화 및 복구를 지원하고, 우크라이나 내 미국 기업의 안전한 5G 인프라 접근성 확보를 목표로 함
- 우크라이나, 일본 기업의 전후 재건사업 참여 확대 요청(9.17)
 - 우크라이나 총리 Serhii Koryukha는 일본 중의원 의장 Etsuro Honda와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 및 에너지 인프라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
 - 우크라이나 측은 일본 정부와 국제협력기구 JICA가 제공한 에너지 설비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, 특히 겨울철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 변압기 공급을 조속히 확대해 줄 것을 요청
 - 특히 전선 인접 지역의 전력 인프라 복구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일본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에너지 설비 공급 및 재건사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, 향후 일본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참여 확대가 예상됨
- 노르웨이, 우크라이나 2026년 개혁 지원에 10억 NOK 투입(9.17)
 - 노르웨이는 EU Ukraine Facility를 통해 2026년 우크라이나에 10억 노르웨이 크로네(약 1,427억원)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, 전쟁 중 정부 핵심 시스템 운영 및 개혁 추진을 지원
 - 지원금은 Ukraine Facility의 1차 재정지원 부문을 통해 제공되며, 우-EU 간 합의된 Ukraine Plan의 개혁 이행을 조건으로 지급
 - 이와 별도로 2026년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5억 NOK를 Ukraine Investment Framework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, 2025년에는 전력·난방용 가스 구매에 15억 NOK를 배정
- 우크라 은행들, EBRD 보증 활용한 에너지·기업 금융 지원 확대(9.18)

- 우 국영 오샤드뱅크(Oschadbank)는 EBRD와 50백만 유로 규모 2차 보증 계약을 체결했으며, 이를 통해 신규 발전설비 및 에너지효율 사업에 대한 투자대출을 확대할 계획
- 해당 프로그램은 EBRD가 대출금의 최대 50%를 보증해 은행의 신용위험을 낮추는 구조로, EU·프랑스·네덜란드가 재정적으로 지원
- 라이파이젠뱅크(Raiffeisen Bank)는 EBRD와 50백만 유로 규모 4차 포트폴리오 위험분담 보증에 합의해, 2025년 9월 설정된 총 2억 유로 한도를 전액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, 농업·운송·물류·산업·제조업 등 핵심 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
- OTP은행은 에너지 설비업체 Elaks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, 우크라이나 기업의 비상발전·에너지저장 등 에너지 자립 설비 구매를 위한 우대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며, 일부 사업에는 EBRD 지원을 통한 사업비 최대 30% 환급도 가능

○ 우크라이나 인프라부, 2026~2027년 인프라 개발 5대 우선과제 제시(9.18)

- 첫째,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인프라 복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통합적 복구정책 수립을 추진하며, 둘째, 국경 통과능력 확대·교통 무비자 제도 연장·교통 디지털화·도로망 회복력 강화·철도개혁 등을 통해 EU 교통망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
- 셋째, 우편서비스의 유럽 기준 정합화, 넷째, 주택·공공서비스 부문의 회복력 강화 및 러시아 공격에 대비한 핵심 인프라 보호를 추진
- 다섯째, 우크라이나 재건과 장기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금융 및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, 교통·인프라 분야의 EU 통합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의 의회 통과도 추진할 계획

○ 우, 2027년 에너지 분야 지원에 973억 흐리우나 투입 계획(9.18)

- 우크라이나 2027년 국가예산안은 에너지 분야 지원에 총 973억 흐리우나(약 2.94조원)를 배정할 계획이며, 러시아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에너지 인프라의 보호·복구 및 분산형 가스발전 확대에 가장 큰 비중을 투입
- 에너지 시설 보호·복구 및 분산형 가스발전 개발에 600억 흐리우나를 배정할 예정이며, 국제 파트너로부터 추가로 88억 흐리우나를 확보해

Ukrenergo·Ukrnafta·Ukrhydroenergo의 에너지 생산·공급 역량 확대와 EU 에너지시장 및 유럽 전력망과의 통합을 지원할 계획

- 기업 및 가계의 에너지효율·에너지 안보 개선을 위한 보조금에 26억 흐리우냐 이상, 체르노빌 원전 운영 및 방사선 안전조치에 32억 흐리우냐, 석탄산업 및 광부 임금 지원에 21억 흐리우냐를 각각 배정
- 이와 함께 긴급 복구·복원 작업에 참여하는 에너지 노동자에 대한 추가 수당으로 7억 흐리우냐를 투입할 예정

○ 우크라이나 철도공사, 유럽 표준궤 기반 국제철도망 확대에 약 7.3억 달러 투자 추진(9.21)

- 우크라이나 철도공사(Ukrzaliznytsia)는 우크라이나와 EU 간 철도 연결 강화를 위해 총 약 7.27억 달러 규모의 3개 철도 프로젝트를 제안하고, 카르파티아 8개국 정상회의에서 잠재 투자자들에게 사업 참여를 요청
- 약 4.41억 달러를 투입해 우 서부 우즈호로드·리비우·코벨과 바르샤바·부다페스트·브라티슬라바·빈·베를린 등을 연결하는 국제 저비용 철도 사업자 설립을 추진하며, 유럽 표준궤용 신규 여객열차 도입 등을 통해 국제 여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
- 이와 함께 1.86억 달러 규모의 체르니우치~루마니아 국경 바둘-시레트 간 47km 표준궤 철도 건설과 1억 달러 규모의 리비우 인근 표준궤 연결사업도 추진하며, 후자의 경우 폴란드~스키닐리우 연결선 및 리비우 우회철도 5km와 국제 여객터미널 건설을 포함

○ 우크라, 카르파티아 8개국에 107억 달러 규모 투자 프로젝트 90건 제시(9.21)

- 우크라는 폴란드·슬로바키아·체코·루마니아·헝가리·오스트리아·세르비아 등 카르파티아 8(C8) 참여국을 대상으로 에너지·물류·산업·인프라·농식품 분야 90개 투자 프로젝트, 총 107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파이프라인을 제시
- 카르파티아 8 정상회의 경제 프로그램에서는 약 10억 유로 규모의 투자·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, 경제행사에는 C8 국가의 기업인·투자자 약 550명이 참여해 역내 투자 및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

○ 우크라이나·루마니아, 국경 인프라 확충 및 EU 물류·교역로 확대를

위한 협력 강화(9.21)

-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는 양국 국경 인프라 개발 및 우크라이나 상품의 EU 내 안정적 운송을 위한 국경 인프라 개발 전략 이행 MOU를 체결했으며, 총 17개 국경검문소(신규 제안 10개 포함)를 대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
- 체코 MND Group, Naftogaz와 우크라이나 3개 생산물분배계약(PSA) 참여 협력 MOU 체결(9.21)
 - 체코 투자그룹 KKCG 산하 에너지기업 MND Group은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Naftogaz와 Ukrgezvydobuvannia(UGV)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체결한 3개 생산물분배계약(PSA) 참여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
 - MND는 우크라이나에서 12년간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, 현재 5개 유·가스전에서 탐사·생산을 진행하고 있고, 2023년에는 UGV와 서부 우크라 탄화수소 탐사 협력에도 합의
 - 이번 협력으로 MND의 우크라이나 석유·가스 탐사 및 생산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, 우크라이나의 국내 에너지 생산 증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, 전후 에너지 분야 외국인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
- 우, 자포리자주 전쟁 피해 아파트 11개동 복구에 1.5억 hryvnia 투입(9.21)
- 우크라 경제부·Raiffeisen Bank, 전후 재건 투자사업 발굴 및 금융지원 체계 구축(9.22)
 - 우크라이나 경제부와 오스트리아계 Raiffeisen Bank International이 전후 복구·재건사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2건의 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
 - 첫 번째 MOU는 Project Preparation Facility(PPF)를 활용해 투자사업을 사전에 발굴·검토하며 완성도 높은 투자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초점
 - 두 번째 MOU는 카르파티아 지역의 르비우·이바노프란키우스크·자카르파티아 체르니우치 4개 주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, 전체 프로젝트의 잠재적 금융지원 규모를 최대 20백만 유로로 설정
- 트럼프·젤렌스키, 뉴욕 정상회담 합의,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및 안보 현안 논의 추진(9.21)

-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
- 이번 회담은 유엔총회 기간 중 개최될 예정으로, 최근 미국 측의 협상 재개 움직임과 맞물려 러시아·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논의를 이어가는 계기로 마련됨

○ IFC, 우크라 Elementum에 최대 60백만 유로 대출 추진, 총 4억 유로 규모 풍력·ESS 사업 지원(9.23)

- 국제금융공사(IFC)는 미국 VR Capital Group 계열사 Elementum Energy가 추진하는 총 257.6MW 규모 우크라이나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최대 60백만 유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
- Elementum은 총 4억 유로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▲ 57.6MW 규모 Dunai 풍력발전소 ▲200MW 규모 Ternopil 풍력발전소 (Windpark West-R)를 개발·건설할 계획
- IFC는 이와 함께 Elementum의 기존 발전소 중 한 곳에 10MW 출력 ·20MWh 저장용량의 에너지저장시스템(BESS)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에 Clean Technology Fund(CTF)를 통한 추가 지원도 검토

○ 우크라이나, 가동·개발 중 산업단지 40곳으로 확대(9.23)

- 우크라이나의 가동·개발 단계 산업단지가 약 40곳으로 증가했으며, 이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 2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확대된 수준
- 우크라이나 정부는 3년 연속 연간 약 10억 흐리우냐의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, 사업비를 정부와 민간이 50:50으로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
- 지원 대상은 3년 이내 최소 5,000m² 규모의 산업시설을 준공하고 2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야 하며, 정부는 공공자금 1흐리우냐당 5~6흐리우냐의 민간 투자 유발을 목표로 설정
- 올해 초 기준 우크라이나 산업단지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약 460억 흐리우냐이며, 지난해 산업단지 내 완공 또는 건설 중인 공장은 37개로 집계, 2026년 말까지 약 50개 공장으로 확대될 전망

○ 우크라이나, 키이우·리비우·오데사 철도역 민관협력 사업 추진하며 역세권 개발 및 복합환승시설 확충(9.23)

- 우크라 정부는 교통·인프라 우선사업 15개 중 하나로 키이우·리비우·오데사 철도역의 민관협력(PPP) 방식 개발을 추진하며, 철도시설 현대화와 상업·부동산 개발을 병행할 계획
- 키이우 중앙역은 약 126백만 달러를 투입해 중앙·남부 역사 건물(약 43,000m²)을 재정비 후 오피스·상업시설 등을 개발할 예정이며, 키이우-보리스필 고속철도를 포함한 철도·도시·광역교통을 연계하는 복합환승 허브도 조성
- 리비우역은 'EU로 향하는 관문(Gateway to the EU)'을 콘셉트로 복합 교통·상업 허브로 개발하며, 25,200m² 이상의 역사 공간 복원과 최대 12만m² 규모 쇼핑센터, 760면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, 1단계 사업비는 108백만 달러, 3단계 전체 사업비는 약 272백만 달러로 추산
- 오데사역은 철도 선로 상부에 약 5,500m² 규모 쇼핑센터를 조성하거나, 73실 규모 호텔(약 3,300m²)과 주차장을 건설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, 사업비는 약 11.6백만 달러로 추산

○ 스위스 기업, 우크라 철도 약 500km 복구용 레일 체결장치 공급하며 인프라 재건 협력 확대(9.23)

- 스위스 민간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철도 약 500km 구간 복구에 필요한 레일 체결장치를 공급, 이외에도 전차선 설비용 부품 약 46,000세트 공급도 진행 중이며, 양국은 철도뿐 아니라 에너지·도시 인프라 재건 및 우크라이나 민간부문 지원 사업도 논의
- 우크라 정부와 스위스 측은 제2차 사업 공모를 통해 철도 및 주거·공공 서비스 분야 약 1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며, 스위스 기업과 우크라 수혜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의 공식 출범은 11월 초 키이우에서 예정

○ 대만 TCC, 우크라 2위 시멘트업체 IFCEM 인수 추진, 최대 7.5억 유로 규모(9.23)

- TCC Group Holdings는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우크라 2위 시멘트업체

Ivano-Frankivskcement(IFCEM) 및 관련 전자재 기업 3곳의 지분 100%를 최대 750백만 유로에 인수하는 안을 승인

- IFCEM은 우크라이나 시멘트 시장의 약 36%를 점유, 연간 약 400만 톤의 전자재 생산능력과 2,5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, 전면전 발발 이후에도 생산과 판매가 지속
- IFCEM은 외부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50MW 및 가스발전 19MW를 자체 구축했으며, 서부 이바노프란키우스크 지역에 생산거점을 보유
- TCC Group Holdings는 우크라이나 인수자산을 네덜란드 지주회사 산하에 보유할 계획으로, 우크라 사업의 전쟁·제재·외환 관련 위험을 기존 유럽 사업 및 향후 상장 구조와 분리하는 동시에, 국제금융기관 등의 공동투자 가능성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됨

○ 터키 Astor Enerji, 키이우주에 최대 2억 달러 규모 전력기기 제조 시설 투자 검토(9.24)

- 터키 전기·전력기기 제조기업 Astor Enerji는 키이우주에 2억 달러를 투자해 에너지저장시스템(ESS), 배터리 솔루션, 전기·변압기 장비 등을 생산하는 제조단지 건설을 검토 중이며, 사업 추진 시 현지 생산능력 확대와 신규 고용 창출에 기여할 전망
- Astor Enerji와 키이우주 군사행정부는 'C8 Summit'을 계기로 MOU를 체결했으며, 키이우주 개발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기반 강화, 첨단기술 도입 및 에너지 안보·회복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

○ 우크라이나 투자회사 Inzhur, 2027년부터 연간 최대 10개 리테일파크 개발 추진(9.24)

- Andrii Zhurzhii가 설립한 투자회사 Inzhur는 2027년 신규 리테일파크 1곳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, 중장기적으로 연간 5~10개의 리테일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
- Inzhur는 2026년 8월 키이우주 브로바리에 첫 번째 Inzhur Retail Park를 개장했으며, 올해 상업시설 5개 건설에 약 12백만~14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주거단지까지 포함한 전체 투자 규모는 약 20백만 달러 상당

○ EIB, 우크라이나 교통·디지털·에너지 인프라에 최대 10억 유로 규모 금융 동원 추진(9.23)

- 유럽투자은행(EIB)은 우크라이나의 교통·디지털·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, 관련 사업에 최대 10억 유로 규모의 금융을 동원할 계획
- 이와 함께 EIB는 Amber Dragon Infrastructure Fund에 50백만 유로를 출자하고, 프랑스 Bpifrance 등과 함께 Ukraine Phoenix Tech Fund의 핵심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인프라뿐 아니라 스타트업·기술 분야 투자도 확대할 계획

○ 러시아의 물류시설 공격으로 우크라 서부 창고 임대료 급등, 물류망 분산 가속(9.24)

- 러시아의 물류 인프라 공격으로 우 서부 일부 지역에서 창고 공급이 부족 해지면서 임대료가 약 200% 상승, 기존 대비 최대 3배 수준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물류기업들의 창고 확보 경쟁에 따른 투기적 수요도 일부 발생

○ 우크라·미국, 호멜니츠키 원전 신규 원전 건설 협력 추진, Westing House 기술 적용(9.23)

-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호멜니츠키(Khmelnyskyi) 원자력발전소 신규 원전 1기 건설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으며, 미국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의 원전 기술을 적용할 계획
- Shmyhal 우크라 에너지부 장관은 뉴욕에서 Wright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후 원전 분야 협력 계획을 공개했으며, 원전 연료 부품 및 연료 집합체 생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언급
- 호멜니츠키 원전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하며 현재 2개 원전이 가동 중이고 2개 원전이 추가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짐
- 미국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문 재건에 174백만 달러, 러시아 공격으로 손상된 체르노빌 원전 방호시설 재건에 1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
- 웨스팅하우스가 폴 최초 원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동부 유럽 내 미국 원전 기술의 적용 확대와도 연계되는 상황임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
'25. 11월 현지SPC,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
'26. 3월 현지SPC-현엔-카인드 구조조정(안) 관련 합의 완료

○(주요동향) '26년 하반기 중 폴란드 법원의 구조조정(안) 심의 결과 도출 예정이며, 합의내용 중 현금변제(→KIND, EUR 7.5백만) 입금완료

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KIND, 베올리아, BHI
- (사 업 비) USD 5.04억
- (사업기간) 2026.11.~2054.12. (건설 37개월, 운영 25년)
- (주요내용) 전기 110MWe,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
- (추진현황) '23.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
'24. 1월~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(F/S 컨설팅지원)
'25. 10월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실시 (남동발전)
'25.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
'26. 10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
'29. 11월 COD

○ (주요동향) 주주 간 계약 등 주요 계약서 execution version 도출 협의

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 업 비) PLN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전용면적 5,296m²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dia 공동개발 논의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
'25. 12월 투자심의 승인
'26. 1월 이사회 승인
'26. 6월 이사회 승인(법인설립)

- (주요동향) '26년 6월 이사회 승인(자회사 설립)
'26년 9월 초 투자계약 체결(KIND↔ZEIT)
'26년 9월 중 법인인수(설립)
'26년 9월 말 SPA 체결(KIND PL↔ZEIT)

*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,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

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 업 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총면적 108,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(Phase I: DC 1·2동, Phase II: DC 3,4,5동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
'25. 12월 KIND 투자승인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
'26. 1월 금융종결
'26. 3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(예정)

- (주요동향) 폴란드 현지 준공식* 개최 예정(9.9)

* KIND, LX판토스, 해진공 참석

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

< 사업 개요 >

- (주관기관) 이에스이(주), (주)아이티코어스, (주)영국씨애피
- (수원정부) 폴란드 루블린시청
- (사업기간) '26.4.1 ~ '26.12.26.
- (사업예산) 700백만 원
- (사업내용)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,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
- (추진현황) '26.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현지조사 수행, LOI 체결(4.28)
'26. 6월 MOU 체결(루블린시와 스마트시티 및 루블린 시 사업 추진 협력)
'26. 8월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완료(8.4.)
'26. 9월 국내 초청 역량강화연수 완료(9.6.~9.12.)
'26.12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○ (주요동향) 폴란드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완료(8.4)

⑥ 우크라이나 EIPP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전략 10개년 및 3개년 실행 계획 수립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주관기관) 안진회계법인(재무), 현대경제연구원(경제), 스마트도시건축학회(도시)
- (수원정부) 우크라이나 경제농업환경부
- (사업기간) '26.2.13. ~ '26.10.2. (232일)
- (사업예산) 1,241백만원 (재위탁 용역금액 818 백만원)
- (사업내용)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구조를 클러스터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함
- (추진현황) '26. 4월 착수보고회 개최 완료(4.27., 화상회의)
'26. 6월 세부실태조사 수행/URC 폴란드 행사참여(6. 22.~6. 28.)
'26. 7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(7. 19.~7. 25.)
'26. 9월 최종보고회 개최(9.15., 화상회의)

○ (주요동향) 착수보고회 개최(4.27), 현지조사 및 URC 재건회의 참석(6.25~26)
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(7.19.~7.25), 최종보고회(9.15)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 (완 료)	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	KIND LH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)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 (완 료)	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	KIND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'24년 4월) • EDCF 사업화 모니터링 (계속)
보 리 스 필 공 항 현대화 등 재 건 (추 진 중)	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	한국 공항공사	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('24.12), 최종보고('25.12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 (완 료)	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	환경산업 기술원	• Pre-F/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('26년 1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 •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
댐 재건 및 현대화 등	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	수자원 공사	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,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
철 도 노 선 고속화 등 (추 진 중)	• 우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국경(약 375km) ②키이우~빈니차~리비우~국경(약 580km) ③키이우~지토미르~리브네~리비우~국경(약 505km) ④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리비우~국경(약 525km)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12월) 및 착수 보고회 개최('25.3월) * 외교부 ODA 지원사업 •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('26.12월)